

‘돌풍’ 광주FC 6경기 무패 도전

23일 광주서 수원 상대 K리그 29라운드

승점 3점 확보 땐 10위권 내 진입도 가능

광주가 마지막 홈경기에서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도전한다.

후반기 신생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 FC는 23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삼성과 상대로 K리그 29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2011 시즌 마지막 홈경기다.

지난 3월 5일 안방에서 열린 대구와의 프로데뷔 무대에서 3-2로 승리를 거두며 화끈한 신고식을 치렀던 광주는 마지막 홈경기에서 다시 한번 승점 3점을 쟁취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28라운드 전남과의 원정경기

에서 주양파울로의 결승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를 정식하며 원정 3연승과 함께 5경기 연속 무패행진중이다.

지난해까지 수원에 몸담았던 최민희 감독은 친정팀을 제물 삼아 한자릿수 순위 진입을 바라고 있다.

시즌 막바지 무서운 속도로 승점을 쏟아붇으며 광주는 승점 35점으로 11위에 랭크돼 있다. 10위 성남과는 승점이 같고, 9위 제주와도 2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수원과의 경기에서 따라서 10위권 진입도 가능하다.

광주는 지난 3월 수원과의 경기에서



서울 시즌 최단시간 골 기록을 작성했었다. 이 경기에 수원 공격수 김동섭은 경기 시작 25초 만에 수원 골망을 훔들면서 K리그 역

대 7번째 최단시간 골 주인공이 됐다. 하지만 광주는 수원의 마토에게 후반전 두 골을 내주며 1-2로 아쉬운 역전 패를 기록했다.

광주는 올 시즌 홈에서 5승 6무 3패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또 6강 진출을 놓고 갈 길 바쁜 낙적 부산·울산·

전남을 상대로 매서운 경기를 펼치며 ‘고춧가루 부대’라는 별명도 얻었다.

반면 올 시즌 아시아 트레플(AFC 챔피언스리그, K리그, FA컵 한 시즌 동시 우승)에 도전했던 수원은 지난 15일 FA컵 결승전에서 성남에 폐해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ACL 4강 알사드(카타르)와의 홈경기에서는 초유의 집단 난투극까지 벌어지며 악재가 겹쳤다.

광주는 9승을 올리며 이미 역대 시민구단 데뷔 시즌 최다승(7승) 기록을 경신했다. 광주가 집중력이 떨어진 3위팀 수원을 상대로 안방에서 10번째 승전보를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토雷斯 2골 “슬럼프 끝났다”

첼시의 페르난도 토레스가 2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벨기에 리싱 케크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E조 3차전 홈경기에서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영 없어도…아스널 조 1위

잉글랜드 프로축구 아스널이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마르세유(프랑스)를 꺾고 조 선두로 나섰다.

아스널은 20일 새벽(한국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2011-2012 UEFA 챔피언스리그

F조 조별리그 3차전 마르세유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레이저가 결승골을 터뜨려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아스널은 2승 1무(승점 7)가 되면서 마르세유를 끌어내리고 조 1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박주영(26)이 원정 명단에서 빠져 결장한 가운데 후반에 교체투입된 레이저가 결승골을 터뜨려 1-0으로 승리했다.

후반 추가시간 미드필드 오른편에서 길게 이어온 패스를 아크 안쪽에 있던 제로비뉴가 슬쩍 방향을 돌려줬다. 페널티지역 원편에서 달려들던

레이저가 이를 놓치지 않고 오른발로 강하게 때려 골 그물을 훔들었고 이 골은 그대로 결승골이 됐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강호’ 바르셀로나는 빅토리아 플렌(체코)과의 H조 3차전 홈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전반 10분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리오넬 메시와 패스를 주고받으며 순식간에 플렌의 수비벽을 무너뜨린 뒤 원발로 선제골을 뽑아냈다. 후반 37분에는 다비드 비야가 2-0 승리를 매듭짓는 세기골을 터뜨렸다.

첼시(잉글랜드)는 라싱 케크(벨기)와의 E조 3차전 홈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친 페르난도 토레스의 활약에 힘입어 5-0 대승을 거두고 조 1위 자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UEFA 챔스리그, 마르세유 꺾어 바르셀로나도 플렌 제압 선두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아스널이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마르세유(프랑스)를 꺾고 조 선두로 나섰다.

아스널은 20일 새벽(한국시간) 프

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

서 열린 2011-2012 UEFA 챔피언스리

리그 F조 조별리그 3차전 마르세유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레이저가 결승골을 터뜨려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아스널은 2승 1무(승점 7)가 되면서 마르세유를 끌어내리고 조 1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박주영(26)이 원정 명단에서 빠져 결장한 가운데 후반에 교체투입된 레이저가 결승골을 터뜨려 1-0으로 승리했다.

후반 추가시간 미드필드 오른편에서 길게 이어온 패스를 아크 안쪽에 있던 제로비뉴가 슬쩍 방향을 돌려줬다. 페널티지역 원편에서 달려들던

레이저가 이를 놓치지 않고 오른발로 강하게 때려 골 그물을 훔들었고 이 골은 그대로 결승골이 됐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강호’ 바르셀로나는 빅토리아 플렌(체코)과의 H조 3차전 홈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전반 10분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리오넬 메시와 패스를 주고받으며 순식간에 플렌의 수비벽을 무너뜨린 뒤 원발로 선제골을 뽑아냈다. 후반 37분에는 다비드 비야가 2-0 승리를 매듭짓는 세기골을 터뜨렸다.

첼시(잉글랜드)는 라싱 케크(벨기)와의 E조 3차전 홈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친 페르난도 토레스의 활약에 힘입어 5-0 대승을 거두고 조 1위 자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치종 17만원 → 12만원
- 만도정품네비 매립(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마감재) 57만원 → 45만원
- 아이나비 2D 매립+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마감재 61만원 → 49만원
- 아이나비 3D 매립+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마감재 65만원 → 53만원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당후결정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 하는일

- 투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너, 하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 2채널 8기가 19만원 → 30만원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 후방카메라 19만원 → 9만원부터

아이나비 클레이어 Real HD 블랙박스

▶ 1채널 4기가 19만원 → 16만원

▶ 2채널 8기가 38만원 → 33만원

▶ Real HD 1채널 8기가 28만원 → 22만원

▶ 파이세이퍼 별도 2만원

▶ 샤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 샤크안테나 10만원 → 6만원부터

도난경보기 | 이지카 | 스트리트버튼

추가부품(옵션) 차량은 금액이 추가될 수 있음

▶ EZ5500 25만원

▶ E7 7만원

▶ E770B 40만원

▶ E7 37만원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EZ620 10~14만원

▶ ET 17만원

* 차량용 고급형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임동오거리 사거리

임동사거리

신안사거리

광주역

임동자동차거리 중간사거리(20번길)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 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걱정 끝

임동 사거리

신안 사거리

광주역